

티켓·해외구매대행몰 소비자만족도 ↓

인터넷쇼핑몰 시장에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과 '티켓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인터넷쇼핑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쇼핑몰'은 ▲종합몰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소셜커머스와 '전문몰'인 ▲컴퓨터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 ▲서적 ▲식품 ▲여행 ▲티켓 등 12개 유형으로 나눴다.

평가하는 해당 쇼핑몰의 '소비자 이용만족도(40점)' '소비자보호(50점)' '소비자피해발생(10점)' 3 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적(도서)을 '영풍문고'가 86.92점으로 100개 쇼핑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아이언드몰

서울시 인터넷쇼핑몰 평가 공개

100개 인터넷쇼핑몰 대상 평가

식품>여행>서적 소비자 만족↑

해외구매대행은 만족도 최하위

86.69점 ▲신세계몰 86.63점 ▲컴 퓨존 86.46점이 차지했다.

유형별 평균점수는 '식품몰'이 85.4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여행 84.85점 ▲서적 84.45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쇼핑몰 유형은 '티켓몰'과 해외구매대행몰'으로, 각각 79.78점과 80.11점을 받았다.

세부 항목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쇼핑몰 구매자가 직접 평가하는 '소비자이용만족도(40점 만점)' 항목에서 종합쇼핑몰 '더현

대닷컴'이 30.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도서몰 영풍문고가 29.92점, 의류몰 'IPmall'이 29.84점, 종합쇼핑몰 아트란드몰이 29.69점을 획득했다.

쇼핑몰 유형별로는 '서적(도서)몰'이 28.85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식품몰 28.44점 ▲화장품몰(28.09점) 순이었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26.72점으로 2017년에 이어 전체 12개 쇼핑몰

유형 중 가장 낮았다. '티켓몰'에 대한 이용만족도 역시 26.7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보호(50점 만점)' 항목에서는 'C'mail'이 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쇼핑몰 유형별로 보면 '식품'이 47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피해 발생(10점 만점)' 항목에 대해서는 100개 업체 중 92개가 10점 만점을 받아 대체적으로 불만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기간은 평균 1.9일(1일=당일처리)로 빠른 편이었다. 92.9%(1171건 중 1114건)이 원활하게 해결됐다.

지난해 인터넷쇼핑몰 통한 연간 거래액이 111조 89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비 22.8% 늘었다. 특히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1.5%(67조 870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강신곡보 개방시 시설물

위험 연구결과…존치 가닥?

수상시설물 위험

한강에 있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철거에 앞서 전면 개방 실험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신곡수 중보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용역업체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2개월간 한강 수상시설물 58곳을 점검한 결과 신곡보를 전면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58개 한강 수상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곡보를 전면 개방할 경우 시설물과 강바닥의 거리가 1m 이하가 되는 곳이 48곳(82.8%), 신곡보를 이에 철거할 경우 그런 곳이 49곳(8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시설이 퇴적층과 닿으면 구조물이 기울어져 무게 중심을 잃거나 시설이 손상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심이 얕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용도 30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써 서울시의 전면 개방 실험계획은 실행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박 시장은 이 신곡수중보의 철거 여부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곡수중보를 일정기간 전면 개방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험을 위한 사전 연구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철거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곡수중보 철거 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는 현재 전면개방실험과 철거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정 지원 한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난해까지 85가구 지원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고시원, 짐질방 등에서 미성년자녀와 살고 있는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희망가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산부업체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여관이나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한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한다. 일정기간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

결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으로 연계해준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5가구를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가구의 거주현태는 모

텔·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짐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자동차·공원화장실 등) 26가구였다. 모두 3억8300만원이 지원됐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 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해 공공·민간 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미세먼지에 갇힌 도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27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노후 전기배선 교체

서울시가 누전으로 인해 한옥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자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한옥에 대한 노후 전기배선 교체 사업은 이미 지난해 9동에 대해 진행된 바 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한옥밀집지역 내 등

록 한옥 20동에 대해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 한옥의 경우, 사업 지원신청서와 함께 건물 전경(지붕 등) 및 내부(목구조 등)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한옥등록 신청 절차를 함께 이행하면 가능하다.

이후 한옥지원센터에서 신청 한옥에 대해 현장 방문·확인하고 노후 전기배선 교체가 시급한 한옥 20동을 선정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4월 5일까지 방문, 우편, 온라인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지원 신청서는 서울 한옥 포털 홈 페 이지 (<http://han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완도군 e 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